

불로 이어 있다

이수경展 2022. 12. 15~2. 10 더페이지갤러리

이수경은 그가 그린 장미 꽃송이를 무의식에 수놓은 영혼이요, 빛이요, 생명이라 말한다. 오로라 빛에 피어나는 작은 생명이라고. 그의 고백은 『천부경』이 “밀동 맘 밀동 해(本心本太陽)”라면서 “뚜렷 밝아(昞明)”로 새긴 뜻에 가닿는다. 마음 깊은 밑자리에는 지지 않는 해가 있다. 해그늘이 하나로 나고 피어 두루 돌아가는 꽃그늘 자리. 형형색색의 ‘빛숨(光氣)’이 움 솟는 자리. 그 자리에 피고 피어 서천꽃밭을 이룬 것이 그의 회화일 것이다. 영혼을 되살리는 서천꽃밭의 회화일 것이다. 빛숨으로 틔운 꽃그늘이 환하고 겸하여 환감(恍惚)이므로. 눈이 부시어 어릿어릿할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고 고운 꽃송이들.

마음으로 쓰는 경전

불교의 제8식 아뢰야식은 무의식의 바다다. 빛 구슬 씨알(種子)이 운슬로 반짝이는 집집 우주의 가없는 마음이다. 너른 마음에 첫 으뜸 뿌리로 늘 빛숨이 밀동에 있으니 류영모는 율려(律呂)의 려(呂)에 빗대어 마음을 ‘땀’이라 불렀다. 하늘땅이 위아래로 맞붙어 돌아가는 가운데에 숨(氣) 하나가 산알(生靈)을 틔우고 있지 않은가(人中天地一)! 꽃송이 별이 은하를 이루며 빛숨을 터트리니 이수경의 영상은 흐릿 어릿 빛나는 가운데

그림(象)이 있다. 그림은 꽃 생김이리라. 어릿어릿 빛나고 흐릿한 꽃 가운데에 몬(物)이 있었다. 몬은 ‘있있(存在)’의 꽃밭이리라. 겸하고 환한 데 있는 그림 꽃, 환하고 겸한 데 있는 꽃밭. 그래서 환감/얼떨(恍惚)이었다. 보고 또 보아도 그윽하고 아득할 뿐이다. 그 꽃밭에 길(道)이 있으리라!

첫 사람 아담 카드몬은 생령된 자였다.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오직 생명일 뿐이었다. 그는 숨 하나로 오롯하였다. 산알 틔우는 숨. 꽃송이가 빛너울로 넘실거리는 이수경 영상은 꽃송이가 산알 틔우는 순간들의 만다라를 보여준다. 드니 빌뇌브의 영화에서 외계인의 ‘말(言語)’은 까마득한 먹빛의 동그라미 꽃이다. 꽃 하나가 문장이다. 불안과 위험과 공포와 전쟁과 슬픔이 한꺼번에 엄습할 때 외계인은 빛숨을 터트리려 수천 개의 꽃을 피운다. 아름다운 말들의 꽃밭. 그 꽃으로 인류를 살렸듯 이수경의 꽃송이도 온 살림의 에너지를 퍼트린다.

이수경의 주제는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이다. 용은 미르 미리 미지로 불리는 빛이요, 은하요, 뒷하늘(後天)이다. 앞하늘(先天)에서 스스로 사슴용이 되어 깨달아 부처가 된 존재요, 하늘땅사람을 한통으로 뚫고 솟구쳐 ‘마루(王)’가 된 존재다. 그는 늘 벼락 빛으로 피기에 아홉 무늬로 옷을 지어 입었다. 낙타머리에 토끼눈, 돼지코, 소귀, 뱀꼬, 잉어비늘, 호랑이발, 매 발톱, 거기에 사슴뿔이다. 빛의 존재는 그렇게 혼돈의 신 제강(帝江)처럼 무늬로 꼭꼭 숨었다. 빛이 새어나가면 이제 죽을 수 있으므로. 이수경의 도자기는 산산이 쪼개진 불의 파편들이 한 덩이로 살아난 빛숨의 용들이다. 한 덩이 한 덩이가 다 살아있는 존재요, 생명이라는 이야기다.

용의 비늘은 9.9 양수(陽數)로 여든 하나다. 아홉에 아홉을 곱한 여든 하나. 『천부경』의 글자 수도, 노자 『도덕경』의 글월(章) 수도 여든 하나다. 이수경은 아홉 용이 이룬 여든 하나의 수로 미학의 경전을 쓴다. 그의 도자기는 불의 숨, 빛의 숨이어서 밀동 맘에 밀동 해로 돌아가는 하늘 모심(侍天主)이기 때문이다. 몸맡얼이 한 덩이를 이룬 마음자리는 본디 나고 든 적이 없다. 나고 든 적이 없음을 깨달아야 나죽지 않는다. 깨지고 흩어져 죽은 파편이 오롯한 하나를 이룬 도자기는 숨구멍 하나 없이 빛숨으로 가득하다. 얼굴에 눈구멍 콧구멍 콧구멍 입구멍이 있다고 제강의 몸에 숨구멍을 뚫으니 죽었다는 『장자』의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 흙의 육체를 소멸한 뒤 불의 뼈로 태어난 백자와 청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수경은 스스로 활활 거리는 불이다. 그는 그의 불로 이어 잇는다. 이음이 곧 마음으로 쓰는 경전이리라.

/ 김 종 길

개인전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전경 이수경(1963년생)은 '도자기 작가'다. 깨진 도자 파편을 이어붙이고 금분으로 그 틈을 메워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를 제작해 왔다. 이번 개인전에는 설치작품뿐만 아니라 '장미'를 주제로 한 신작 페인팅과 영상작업을 출품했다. 장미가 내뿜는 아생의 에너지를 몽환적인 화면에 담았다. "내게 장미는 빛이자, 생명이다."

